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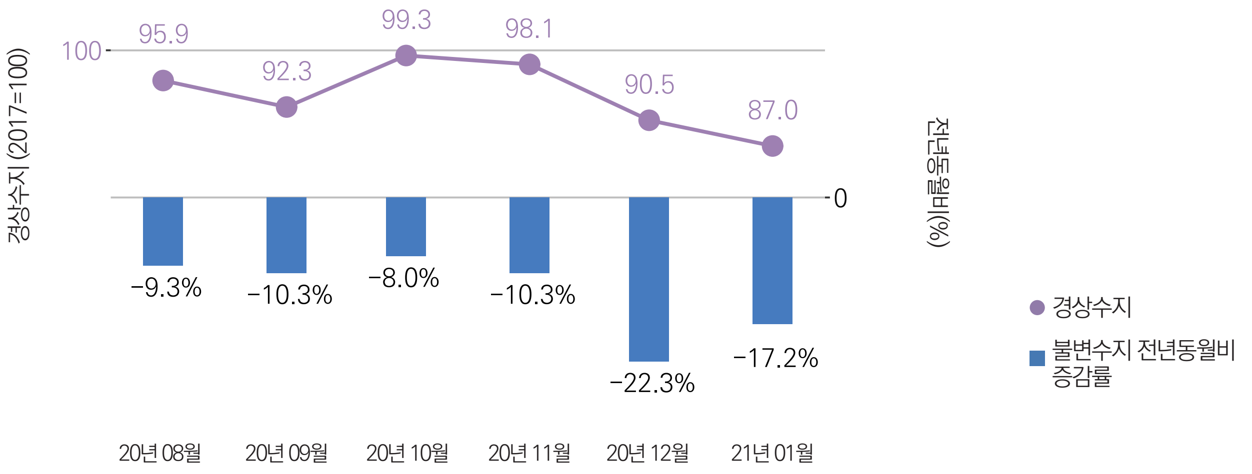
• 2021년 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7.2% 급락, 전월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 지속

- 전년동월대비 -17.2% = 소매업의 기여도 -1.2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5.9%p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- 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 급락은 소매업의 부진 및 숙박·음식점업의 심한 부진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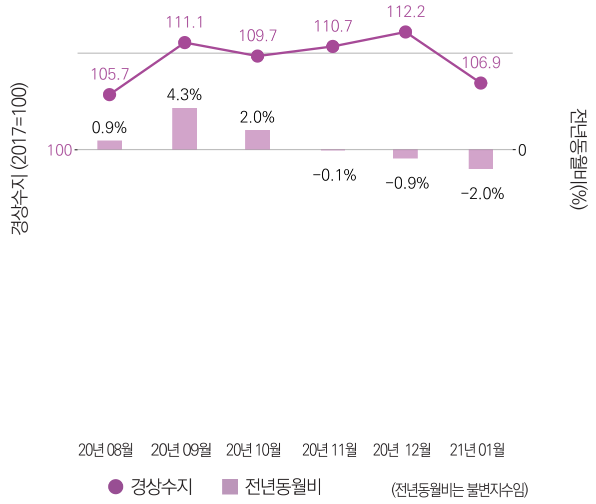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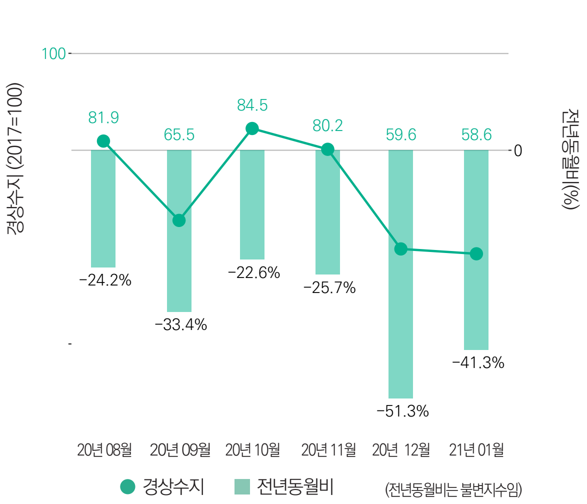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2.0% 하락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41.3% 급락

- 2020년 11월 감소로 전환된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, 시간이 지날수록 내림폭도 다소 커지고 있음.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의 내림폭이 줄고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 내구재 매출은 늘었으나 식음료품 매출이 급락(명절효과에 기인)하며 소매업 내림폭은 오히려 전월보다 커짐
  · 1월 서울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 순으로 소비증가
  ·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음식료품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, 종합소매, 연료 순으로 소비감소
- 1월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은 모두 고르게 내림폭이 줄어들면서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내림폭은 전월보다 10.0%p 감소. 그러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장기적 영업 제한으로 인해 숙박·음식점업 부진은 지속
  · 1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소비 증가 업종 없이 주점·커피점문점, 숙박, 음식점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감소

| 서울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